

6.15 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통일을 앞당기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 대고조격전장들에서 혁명의 북소리 높이 울리고있는 조선인민군 제963군부대에 예술선전대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대고조격전장들에서 혁명의 북소리 높이 울리고있는 조선인민군 제963군부대에 예술선전대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는 전체 관람자들은 정력적인 선군혁명령도로 영웅적조선인민군을 천하무적의 강군으로 키워주신 아버지장군님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김정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예술선전대는 이날 공연무대에 선 동시 《조선의 2월》, 녀성5중창 《행복의 노래》, 혼성중창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 중창이 야기 《열가지 증대관리준칙의 노래》, 극재담 《회초신식》, 기악병창 《내가 지켜선 조국》, 촌극 《친아들》, 남성중창 《발걸음》, 혁명영화선동 《친위전사》, 합창 《천세만세 장군님을 목숨으로 보위하리라》 등 여러가

지 형식의 다채로운 종목들을 펼치였다.

조선의 정신, 백두의 혁명정신이 도도히 맥박치는 격동적인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장내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답례를 보내시며 공연성공을 축하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군부대에 예술선전대원들이 우리 군인들의 무한대한 정신력을 그대로 반영한 훌륭한 작품들을 가지고 진실하고 전투적인 공연을 진행한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공연성공을 높이 평가하시고 감사사를 주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예술선전대원들이 혁명군대의 예술인답게 강성대국건설의 전초선인 회천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대고조격전장들에서 정치선전, 경제선동을 맹렬히 벌려 군인들

에게 필승의 신심과 락관, 멸적의 투지와 용맹을 안겨주고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혁명적인 투쟁기풍을 높이 치하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예술선전은 군인교양의 위력한 수단인 하나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예술선전대들이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예술선전활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는 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본사기자

## 최고의 영예, 최대의 행복

### 2.16 경축행사 여러 나라에서 진행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로므니아, 브라질, 타이에서 강연회와 영화감상회가 1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로므니아군로 자협회, 브라질 쌀 싸움로 주 쌀포스시청, 브라질공산당, 타이 글로벌링크 인터내셔널 홀리데이관광여행사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영화감상회에서는 《오늘의 평양》을 비롯한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로므니아군로자협회 위원장은 《김정일, 인민이 흠모하는분》이라는 제목으로 다

음과 같이 강연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인민들로부터 열화같은 호모를 받고계신다.

그이께서 조선을 정치사상 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심으로써 조선인민의 존엄과 영예는 최상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그 누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침해하려는데 대하여서는 추호의 양보없이 강경하게 맞서나가시였으며 자주정치에 대한 확고한 담보로 되는 강한 군력을 마련하시였다.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현지시찰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

가신것을 통해서도 군력강화에 바치신 그이의 헌신에 대해 잘 알수 있다.

김정일각하의 선군령도 밑에 조선인민군은 필승의 강군으로 자라났으며 조선은 믿음직한 전쟁역력까지 갖춘 난공불락의 요새로 위용 떨치게 되었다.

조선에서는 가장 어렵었던 시련의 시기에도 고도의 정치적인 안정이 보장되었을뿐 아니라 사회의 일심단결이 더욱 공고해졌다. 그것은 인민에 대한 령도자의 사랑과 믿음의 정치와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조선인민은 김정일령도자를 끝없이 존경하고 흠모하

고있으며 그이를 모시고있는 것을 최고의 영예, 최대의 행복으로 여기고있다.

브라질 쌀 싸움로 주 쌀포스시 부시장은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이전 쏘련과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제국주의자들의 비렬한 반공화국압살공세가 절정에 달하였을 때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드시고 국방력강화에 선차적인 힘을 돌리시어 조선을 불패의 현명한 령도가 있는 한 조선인민은 반드시 강성대국을 건설하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하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럽없이 사

는 강성대국을 건설할데 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신다.

타이 글로벌링크 인터내셔널 홀리데이관광여행사 사장은 영화를 보고 조선이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면서 자기 선택한 길로 힘차게 나아가고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알게 되었다.

김정일령도자의 천품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김정일각하의 현명한 령도가 있는 한 조선인민은 반드시 강성대국을 건설하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하였다.

본사기자

## 2.16 경축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전람회

### 여러 나라에서 진행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벨라루스, 브라질, 타이에서 강연회와 영화감상회가 1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벨라루스군로 자협회, 브라질 쌀 싸움로 주 쌀포스시청, 타이 글로벌링크 인터내셔널 홀리데이관광여행사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영화감상회에서는 《오늘의 평양》을 비롯한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로므니아군로자협회 위원장은 《김정일, 인민이 흠모하는분》이라는 제목으로 다

음과 같이 강연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인민들로부터 열화같은 호모를 받고계신다.

그이께서 조선을 정치사상 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심으로써 조선인민의 존엄과 영예는 최상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그 누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침해하려는데 대하여서는 추호의 양보없이 강경하게 맞서나가시였으며 자주정치에 대한 확고한 담보로 되는 강한 군력을 마련하시였다.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현지시찰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

본사기자



뜻깊은 2월의 명절을 맞이한 평양의 불야경

## 위대한 승리를 안아오는 정치

인류정치사에 길이 빛날 독창적인 정치방식으로 준엄한 선군혁명의 년대기에 자랑찬 승리를 안아오는 위대한 장군의 기치이며 최첨단 국제사회의 청송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도미니카혁명적대안당 총비서는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반동들의 악랄한 책동속에서도 조선에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진보적인민들에게 신심을 안겨주는 기쁜 성과들이 연이어 이루어지고있는 비결은 김정일동지의 신비로운 정치에 있다고 격찬하였다.

우간다전국학생운동 캄팔라시위원회 위원장은 김정일각하께서는 선군혁명

### 국제사회계가

경도 조선을 불패의 강국으로 전변시키시킴으로써 조선인민은 물론 세계 진보적인민들로부터 다함없는 존경을 받고계신다. 참으로 그이께서는 쌓으신 업적으로 하여 세계적인 결출한 령도자로 명성을 떨치고계신다고 말하였다.

만마동종의학과학연구소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선군은 조선력사에서 전례없는 변혁의 새시대를 안아오는 위대한 창조적 기치이며 최첨단기술에 기초하여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함으로써 자체의 힘으로

조선식의 경제강국을 건설하게 하는 비약의 기치이다.

선군령장이신 김정일각하를 당과 군대, 국가의 최고반드시 승리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슴에 새긴 조선의 군대와 인민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

로씨야신문 《바쁘리오프》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조선에서 선군정치는 필승불패의 보검이라는 생동한 구경으로 실생활에 구현되고있다.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 밑에 조선인민은 강성대국

건설을 성과적으로 진척시키고 있다.

조선의 이러한 노력과 거창한 진군은 국제문제들에서 이 나라가 주도권과 결결성을 발휘하게 하는 담보로 되고있다.

메히코 김일성주의연구위원회 위원장은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지난해 조선인민은 선군의 위력으로 적들의 악랄한 도전을 짓부시며 혁명과 건설에서 경이적인 성과를 이루하였다.

21세기의 새로운 년대들도 신속하고 세련된 김정일정치의 위대한 승리의 년대로 빛날것이라고 확언하였다.

요르단에 있는 조선인민파의 연대성 및 조선통일 지지 아랍위원회 위원장은 도서 《김정일선군정치론》에서 이렇게 썼다.

김정일동지께서 펼치시는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현실을 통하여 실증됨으로써 세계적인단에서 선군정치지지열풍이 더욱 세차게 일어나고있다.

선군정치처럼 하나의 정치방식이 짧은 기간에 이렇듯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한 레는 찾아볼수 없다.

선군조선이 있어 행정우에 자주위업승리의 기발이 펄펄 휘날릴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 조국소식

### 신평금강에서 72개의 명소 발굴

신평금강은 황해북도 신평군 평화리 도화동에 위치한 명승지이다.

야호비평산줄기에 깊숙이 자리잡고있는 신평금강명승지는 이름그대로 작은 금강산이라고 할 정도로 경치가 아름답다.

최근에 해당 부문 일군들로 무어진 발굴집단이 신평금강명승지에 대한 전면적인 답사를 진행하여 72개의 명소들을 새로 발굴하였다.

하나의 자연정치를 모시고도 인민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고 해당 부문의 일군들은 신평금강의 명소들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을 힘

있게 벌여왔다. 특히 지난해 김일성종합대학 지구환경과학부 교원, 연구사들과 문화보존지도국, 조선문화보존사, 황해북도 신평군의 해당 부문 일군들로 무어진 발굴집단은 신평금강의 기본골짜기는 물론 가지팔짜기까지 전부 점령하였다.

결과 구룡포폭포에서 구룡계곡, 로직바위 등 20개의 명소를, 금강폭포에서 비단폭포, 오누이폭포, 형제폭포 등 10개의 명소를 발굴하였다.

이밖에도 옥류동과 옥류대굴, 단풍골과 도화동, 남강총석정구역에서 수많은 명소들이 발굴되었다.

### 백두산상체육경기대회 개막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맞으며 백두산상체육경기대회가 개막되었다.

대회기간 평양과 삼지연 등지에서 룡구, 배구, 탁구, 송구, 사격, 빙상호케이, 스키를 비롯한 10개 종목의 경기들이 진행된다.

개막식이 8일 평양체육관에서 있었다.

강능수내각부총리, 관계부문 일군들, 체육인들, 평

뜻깊게 경축하고 금메달로 선군조선의 영예를 떨치는데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경기대회기발이 계양되었다.

토론에 이어 선수들의 분별행진이 있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평양체육단과 기관체육단사이의 너차배구경기가 있었다.

본사기자







# 동족대결만을 추구하는 자들의 반평화적이며 반통일적인 모든 죄행은 철저히 계산될 것이다

## 대화마당을 대결마당으로 만든 용납 못할 죄악

지난 2월 8일부터 9일까지 북과 남은 서로의 불신과 적대감을 해소하고 대결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북남고위급군사회담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실무접촉으로서 예비회담을 판문점에서 진행하였다.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우리 민족과 세계여론의 관심속에 진행된 이번 회담은 내외의 기대와는 어긋나게 소기의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이번 회담의 전과정은 우리 민족과 세계앞에 누가 조선반도에서 진정으로 민족의 단합과 평화를 바라고 또 누가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준 마당으로 되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이번 회담은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공화국의 주동적인 제의와 노력에 의해 마련된 것이다.

전하던 북남관계가 남조선에서 현 당국이 출현한 3년간 불신과 오해, 반목과 질시의 악화일로로 걸어왔다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로부터 공화국은 21세기 새로운 10년대를 맞이하는 올해에 어떻게 해서나 악화된 북남관계를 바로잡고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남조선당국에 폭넓은 대화제의를 하였다.

그런데 남조선당국은 온 겨레가 지지와 찬동을 보내는 폭넓은 대화제의를 두고 그 무슨 《진정성》이니, 《상투적 평화공세》이니 하며 계속 원색기를 쏘아왔다.

그들이 북남대화를 요구하는 내외의 압력에 못이겨 마지못해 이번 회담장에 나왔지만 속심은 처음부터 면담이 없었었다.

이번 회담과정에서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원래 이번 예비회담은 본회담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이나

간단히 협의확정하는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것으로서 크게 제기될것도 없었다.

그런데 남측은 고위급군사회담의 의제설정에서부터 저들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내세우며 양탈질을 부렸는가 하면 대표단구성과 관련하여서도 료리에 맞지 않는 역지주장을 고집하면서 회담장에 오만을 조성하였다. 그런가하면 본회담의 개회날짜를 바라는 겨레의 지향은 외면한채 이리저리러한 구실로 회담날짜연기를 주장하였다. 지어 저들의 강도적인 생략자가 통하지 않자 나중에는 회담도중에 일방적으로 철수하고 상대측 대표단을 바래주는 초보적인 의례절차도 철회하는 망동짓을 하였다. 이것은 북남회담사에 일찌기 없었던 일이다.

공화국의 인내와 아량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어떻게 해서나 회담을 성사시켜보려는 북측의 노력을 무

시하고 대결기도를 그대로 드러낸 남조선당국의 부당한 책 등으로 말미암아 얼마 시간도 걸리지 않을 군부예비회담은 무려 이틀동안에 걸쳐 시간만 허비하다가 종당에는 결렬되고 말았다.

이번 회담을 통하여 남조선당국이 걸로는 《대화》를 부르짖지만 실제로 있어서는 북남대화자체를 거부하여 6자회담제과 주변국들의 대화호를 막으며 대결과 군사적 긴장을 한정없이 지속시키려 한다는것이 다시금 만천하에 드러났다.

북이 대화를 주장하는것은 전민족의 안전과 평화, 통일을 위해서이다.

민족도 모르고 저 하나의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위해 동족대결과 전쟁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남조선당국은 그로 부터 초래되는 돌이킬수 없는 후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것이다.

북남관계가 총과탄에 직면하고 쌍방간에 포탄이 오가는 지경에까지 이른 오늘날의 엄중한 정세에서 군사적긴장을 하루빨리 해소하는것은 민족의 안전과 통일을 위한 선차적이고도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은 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고위급군사회담을 가질데 대한 북의 제의에 대하여 처음부터 못마땅하고 불성실한 자세를 보여왔다.

예비회담과 본회담의 날차연기를 고집한 남조선군부당국의 태도를 놓고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이 때문에 2월말경에 본회담을 하자는 자기들의 립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고집하였다.

하다면 남조선당국이 북남대화의 성과를 목마르게 갈망하는 내외인민들의 지향에 배치되지 이구실, 저구실을 내대며 본회담의 날자를 의도적으로 늦잡은

설명절에 가족, 친척들과 즐겁게 휴식하며 이웃들과도 정을 두러이하는 것은 반만년의 오랜 세월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겨레의 고유한 민족 전통이다.

그러나 민족의 운명, 나라의 전도라는 중대사를 앞에 놓고 앉고 풍습에 대해 먼저 논하는것은 어불성설이다.

하기에 공화국은 우리 겨레의 민족성을 살리고 남조선당국의 의견도 존중하여 정월대보름명절 다음날인 18일로 하자는 절충안을 또다시 내놓았다.

그런데 남조선당국은 이때에도 2월말경에 본회담을 하자는 자기들의 립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고집하였다.

하다면 남조선당국이 북남대화의 성과를 목마르게 갈망하는 내외인민들의 지향에 배치되지 이구실, 저구실을 내대며 본회담의 날자를 의도적으로 늦잡은

진짜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것이다.

알려진것처럼 남조선당국은 해마다 2월말경부터 미군과 약하며 《키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년례적으로 벌리고 있다.

하늘과 땅, 바다에서 립체적으로 진행되는 이 합동군사연습은 철두철미 공화국에 대한 불의의 선제공격을 노린 북침핵전쟁으로부터 평화를 바라는 온 겨레의 강력한 규탄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반공화국침략전쟁연습을 계속 벌일것이라고 공공연히 떠들면서 공화국의 대법하고 폭넓은 대화제의를 무시하고 대결소동을 로골화하였다.

대화상대방에 대한 적대과 위협이 판무하는 속에서 전쟁종식과 군사적 긴장상태해소를 토의하자

는 회담자체가 성립될수 없고 설사 진행된다 해도 옳바른 결실을 맺을수 없다.

결국 남조선당국이 2월말경을 본회담날자로 정하고 그 책임을 공화국에 넘겨주려는 의도에 목적이 있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이 《〈키리졸브〉한미연합훈련이 올해 조선반도정세의 첫 변수령이 될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고 이에 따라 《남북이 대화를 지속하지, 아니면 다시 대결구도로 전환할것이 결코 필것》이라고 당국을 내놓고 비판한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군사회담을 가로막고 전쟁의 초동성을 계속 올려가려는 남조선호전세력의 불순한 대결책동은 민족의 자주와 규탄을 면치 못할것이다.

본사기자 김철호

《본회담의 의제에 대한 남북사이의 립장차가 매우 컸다. 남측은 판사와 최수신분으로 회담하자고 하는데 과연 북측이 이를 받아들였는지.》

북남고위급군사회담개회를 위한 예비회담소식을 지켜보며 남조선 각계에서 울려나왔던 우려의 목소리이다.

결국 그 우려는 현실로 되어 예비회담은 중도에서 결렬되고 말았다.

책임은 상대방의 감정을 극도로 건드리는 무례하고 일방적인 주장만을 고집한 남측당국에 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이번 예비회담에서 남측은 《〈천안〉호폭침과 연평도포격도발에 대한 책임인정 조치와 추가도발방지확약, 비핵화

문제

서로가 의견이 없도록 깨끗이 청산하고 쌍방사이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회담을 진행하도록 해야 했다.

그런데 남측은 예비회담시작부터 그 누구의 일지도 않는 《죄》를 인정시키고 그에 대한 《책

에서부터 파란시킨 장본인들이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있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닳두꺼운 행위이고 대화결렬의 책임을 남에게 넘겨주려는 술책이 아닐수 없다.

이번 예비회담을 통하여 동족대결을 끝까지 추구하려는 현 남조선당국의 반민족적정체가 다시금 날이 드러나게 되었다.

공화국의 진지한 노력에 의하여 모처럼 마련된 북남군부대화를 눈앞에서 가까하지 않고 결렬에 몰아간 남조선당국자들의 반통일죄악은 결코 용납될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대화나 전쟁이나 하는 운명의 기로에서 선택을 바로하여야 한다.

본사기자 류철진

《본회담의 의제에 대한 남북사이의 립장차가 매우 컸다. 남측은 판사와 최수신분으로 회담하자고 하는데 과연 북측이 이를 받아들였는지.》

북남고위급군사회담개회를 위한 예비회담소식을 지켜보며 남조선 각계에서 울려나왔던 우려의 목소리이다.

결국 그 우려는 현실로 되어 예비회담은 중도에서 결렬되고 말았다.

책임은 상대방의 감정을 극도로 건드리는 무례하고 일방적인 주장만을 고집한 남측당국에 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이번 예비회담에서 남측은 《〈천안〉호폭침과 연평도포격도발에 대한 책임인정 조치와 추가도발방지확약, 비핵화

《본회담의 의제에 대한 남북사이의 립장차가 매우 컸다. 남측은 판사와 최수신분으로 회담하자고 하는데 과연 북측이 이를 받아들였는지.》

북남고위급군사회담개회를 위한 예비회담소식을 지켜보며 남조선 각계에서 울려나왔던 우려의 목소리이다.

결국 그 우려는 현실로 되어 예비회담은 중도에서 결렬되고 말았다.

책임은 상대방의 감정을 극도로 건드리는 무례하고 일방적인 주장만을 고집한 남측당국에 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이번 예비회담에서 남측은 《〈천안〉호폭침과 연평도포격도발에 대한 책임인정 조치와 추가도발방지확약, 비핵화

《본회담의 의제에 대한 남북사이의 립장차가 매우 컸다. 남측은 판사와 최수신분으로 회담하자고 하는데 과연 북측이 이를 받아들였는지.》

북남고위급군사회담개회를 위한 예비회담소식을 지켜보며 남조선 각계에서 울려나왔던 우려의 목소리이다.

결국 그 우려는 현실로 되어 예비회담은 중도에서 결렬되고 말았다.

책임은 상대방의 감정을 극도로 건드리는 무례하고 일방적인 주장만을 고집한 남측당국에 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이번 예비회담에서 남측은 《〈천안〉호폭침과 연평도포격도발에 대한 책임인정 조치와 추가도발방지확약, 비핵화

《본회담의 의제에 대한 남북사이의 립장차가 매우 컸다. 남측은 판사와 최수신분으로 회담하자고 하는데 과연 북측이 이를 받아들였는지.》

북남고위급군사회담개회를 위한 예비회담소식을 지켜보며 남조선 각계에서 울려나왔던 우려의 목소리이다.

결국 그 우려는 현실로 되어 예비회담은 중도에서 결렬되고 말았다.

책임은 상대방의 감정을 극도로 건드리는 무례하고 일방적인 주장만을 고집한 남측당국에 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이번 예비회담에서 남측은 《〈천안〉호폭침과 연평도포격도발에 대한 책임인정 조치와 추가도발방지확약, 비핵화

《본회담의 의제에 대한 남북사이의 립장차가 매우 컸다. 남측은 판사와 최수신분으로 회담하자고 하는데 과연 북측이 이를 받아들였는지.》

북남고위급군사회담개회를 위한 예비회담소식을 지켜보며 남조선 각계에서 울려나왔던 우려의 목소리이다.

결국 그 우려는 현실로 되어 예비회담은 중도에서 결렬되고 말았다.

책임은 상대방의 감정을 극도로 건드리는 무례하고 일방적인 주장만을 고집한 남측당국에 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이번 예비회담에서 남측은 《〈천안〉호폭침과 연평도포격도발에 대한 책임인정 조치와 추가도발방지확약, 비핵화

## 초보적인 대화삼식도 없는 무례한 행동

북남고위급군사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예비회담자체를 결렬시킨 남조선당국의 무례한 처사는 지금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와 격분을 자아내고 있다.

더욱이 문제는 남조선당국이 여기에서 수치를 느낄 대신 그 무슨 《진정성》을 떠들며 그 책임을 공화국에 전가시키고 있는것이다.

과연 이번 예비회담이 결렬된것이 그 누구의 《진정성》 때문인가.

이번 예비회담에서 북측대표단은 남조선당국이 제기한 문제들에 성의있는 대답을 주고 여러차례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방도들을 내놓았다.

남조선당국의 요구대로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고 하였고 또 이러한 북남대결의 비극을 끝장내기 위해 조선

반도의 군사적긴장상태의 해소와 쌍방이 도발로 간주될수 있는 모든 군사적행동을 엄금할데 대하여 회담의제로 정하자고 하였다.

이것은 어떻게 하나 북남사이의 불미스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민족의 단합과 통일의 밝은 전경을 열어나가는 일념에서 출발한것이다.

그러나 남측은 《진정성》이니, 《공식적인 책임인정》이니 하는 저들의 제안만을 고집하면서 그것이 없이는 본회담을 개최할수 없다고 생역지를 부리었다.

공화국이 사리정연한 문제를 제시하고 여러차례 정당한 절충안을 내놓았음에도 남측성원들이 해 회담이 결렬되는 마지막순간까지 두 사건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와 《추가도발방지확약》만을 고집하였다.

반도의 군사적긴장상태의 해소와 쌍방이 도발로 간주될수 있는 모든 군사적행동을 엄금할데 대하여 회담의제로 정하자고 하였다.

이것은 어떻게 하나 북남사이의 불미스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민족의 단합과 통일의 밝은 전경을 열어나가는 일념에서 출발한것이다.

그러나 남측은 《진정성》이니, 《공식적인 책임인정》이니 하는 저들의 제안만을 고집하면서 그것이 없이는 본회담을 개최할수 없다고 생역지를 부리었다.

공화국이 사리정연한 문제를 제시하고 여러차례 정당한 절충안을 내놓았음에도 남측성원들이 해 회담이 결렬되는 마지막순간까지 두 사건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와 《추가도발방지확약》만을 고집하였다.

반도의 군사적긴장상태의 해소와 쌍방이 도발로 간주될수 있는 모든 군사적행동을 엄금할데 대하여 회담의제로 정하자고 하였다.

이것은 어떻게 하나 북남사이의 불미스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민족의 단합과 통일의 밝은 전경을 열어나가는 일념에서 출발한것이다.

그러나 남측은 《진정성》이니, 《공식적인 책임인정》이니 하는 저들의 제안만을 고집하면서 그것이 없이는 본회담을 개최할수 없다고 생역지를 부리었다.

공화국이 사리정연한 문제를 제시하고 여러차례 정당한 절충안을 내놓았음에도 남측성원들이 해 회담이 결렬되는 마지막순간까지 두 사건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와 《추가도발방지확약》만을 고집하였다.

반도의 군사적긴장상태의 해소와 쌍방이 도발로 간주될수 있는 모든 군사적행동을 엄금할데 대하여 회담의제로 정하자고 하였다.

이것은 어떻게 하나 북남사이의 불미스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민족의 단합과 통일의 밝은 전경을 열어나가는 일념에서 출발한것이다.

그러나 남측은 《진정성》이니, 《공식적인 책임인정》이니 하는 저들의 제안만을 고집하면서 그것이 없이는 본회담을 개최할수 없다고 생역지를 부리었다.

공화국이 사리정연한 문제를 제시하고 여러차례 정당한 절충안을 내놓았음에도 남측성원들이 해 회담이 결렬되는 마지막순간까지 두 사건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와 《추가도발방지확약》만을 고집하였다.

반도의 군사적긴장상태의 해소와 쌍방이 도발로 간주될수 있는 모든 군사적행동을 엄금할데 대하여 회담의제로 정하자고 하였다.

이것은 어떻게 하나 북남사이의 불미스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민족의 단합과 통일의 밝은 전경을 열어나가는 일념에서 출발한것이다.

그러나 남측은 《진정성》이니, 《공식적인 책임인정》이니 하는 저들의 제안만을 고집하면서 그것이 없이는 본회담을 개최할수 없다고 생역지를 부리었다.

공화국이 사리정연한 문제를 제시하고 여러차례 정당한 절충안을 내놓았음에도 남측성원들이 해 회담이 결렬되는 마지막순간까지 두 사건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와 《추가도발방지확약》만을 고집하였다.

반도의 군사적긴장상태의 해소와 쌍방이 도발로 간주될수 있는 모든 군사적행동을 엄금할데 대하여 회담의제로 정하자고 하였다.

이것은 어떻게 하나 북남사이의 불미스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민족의 단합과 통일의 밝은 전경을 열어나가는 일념에서 출발한것이다.

그러나 남측은 《진정성》이니, 《공식적인 책임인정》이니 하는 저들의 제안만을 고집하면서 그것이 없이는 본회담을 개최할수 없다고 생역지를 부리었다.

공화국이 사리정연한 문제를 제시하고 여러차례 정당한 절충안을 내놓았음에도 남측성원들이 해 회담이 결렬되는 마지막순간까지 두 사건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와 《추가도발방지확약》만을 고집하였다.

반도의 군사적긴장상태의 해소와 쌍방이 도발로 간주될수 있는 모든 군사적행동을 엄금할데 대하여 회담의제로 정하자고 하였다.

이것은 어떻게 하나 북남사이의 불미스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민족의 단합과 통일의 밝은 전경을 열어나가는 일념에서 출발한것이다.

그러나 남측은 《진정성》이니, 《공식적인 책임인정》이니 하는 저들의 제안만을 고집하면서 그것이 없이는 본회담을 개최할수 없다고 생역지를 부리었다.

공화국이 사리정연한 문제를 제시하고 여러차례 정당한 절충안을 내놓았음에도 남측성원들이 해 회담이 결렬되는 마지막순간까지 두 사건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와 《추가도발방지확약》만을 고집하였다.

## 대화파괴자의 《대화》다령

《본회담의 의제에 대한 남북사이의 립장차가 매우 컸다. 남측은 판사와 최수신분으로 회담하자고 하는데 과연 북측이 이를 받아들였는지.》

북남고위급군사회담개회를 위한 예비회담소식을 지켜보며 남조선 각계에서 울려나왔던 우려의 목소리이다.

결국 그 우려는 현실로 되어 예비회담은 중도에서 결렬되고 말았다.

책임은 상대방의 감정을 극도로 건드리는 무례하고 일방적인 주장만을 고집한 남측당국에 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이번 예비회담에서 남측은 《〈천안〉호폭침과 연평도포격도발에 대한 책임인정 조치와 추가도발방지확약, 비핵화

《본회담의 의제에 대한 남북사이의 립장차가 매우 컸다. 남측은 판사와 최수신분으로 회담하자고 하는데 과연 북측이 이를 받아들였는지.》

북남고위급군사회담개회를 위한 예비회담소식을 지켜보며 남조선 각계에서 울려나왔던 우려의 목소리이다.

결국 그 우려는 현실로 되어 예비회담은 중도에서 결렬되고 말았다.

책임은 상대방의 감정을 극도로 건드리는 무례하고 일방적인 주장만을 고집한 남측당국에 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이번 예비회담에서 남측은 《〈천안〉호폭침과 연평도포격도발에 대한 책임인정 조치와 추가도발방지확약, 비핵화

《본회담의 의제에 대한 남북사이의 립장차가 매우 컸다. 남측은 판사와 최수신분으로 회담하자고 하는데 과연 북측이 이를 받아들였는지.》

북남고위급군사회담개회를 위한 예비회담소식을 지켜보며 남조선 각계에서 울려나왔던 우려의 목소리이다.

결국 그 우려는 현실로 되어 예비회담은 중도에서 결렬되고 말았다.

책임은 상대방의 감정을 극도로 건드리는 무례하고 일방적인 주장만을 고집한 남측당국에 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이번 예비회담에서 남측은 《〈천안〉호폭침과 연평도포격도발에 대한 책임인정 조치와 추가도발방지확약, 비핵화

《본회담의 의제에 대한 남북사이의 립장차가 매우 컸다. 남측은 판사와 최수신분으로 회담하자고 하는데 과연 북측이 이를 받아들였는지.》

북남고위급군사회담개회를 위한 예비회담소식을 지켜보며 남조선 각계에서 울려나왔던 우려의 목소리이다.

결국 그 우려는 현실로 되어 예비회담은 중도에서 결렬되고 말았다.

책임은 상대방의 감정을 극도로 건드리는 무례하고 일방적인 주장만을 고집한 남측당국에 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이번 예비회담에서 남측은 《〈천안〉호폭침과 연평도포격도발에 대한 책임인정 조치와 추가도발방지확약, 비핵화

《본회담의 의제에 대한 남북사이의 립장차가 매우 컸다. 남측은 판사와 최수신분으로 회담하자고 하는데 과연 북측이 이를 받아들였는지.》

북남고위급군사회담개회를 위한 예비회담소식을 지켜보며 남조선 각계에서 울려나왔던 우려의 목소리이다.

결국 그 우려는 현실로 되어 예비회담은 중도에서 결렬되고 말았다.

책임은 상대방의 감정을 극도로 건드리는 무례하고 일방적인 주장만을 고집한 남측당국에 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이번 예비회담에서 남측은 《〈천안〉호폭침과 연평도포격도발에 대한 책임인정 조치와 추가도발방지확약, 비핵화

《본회담의 의제에 대한 남북사이의 립장차가 매우 컸다. 남측은 판사와 최수신분으로 회담하자고 하는데 과연 북측이 이를 받아들였는지.》

북남고위급군사회담개회를 위한 예비회담소식을 지켜보며 남조선 각계에서 울려나왔던 우려의 목소리이다.

결국 그 우려는 현실로 되어 예비회담은 중도에서 결렬되고 말았다.

책임은 상대방의 감정을 극도로 건드리는 무례하고 일방적인 주장만을 고집한 남측당국에 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이번 예비회담에서 남측은 《〈천안〉호폭침과 연평도포격도발에 대한 책임인정 조치와 추가도발방지확약, 비핵화

《본회담의 의제에 대한 남북사이의 립장차가 매우 컸다. 남측은 판사와 최수신분으로 회담하자고 하는데 과연 북측이 이를 받아들였는지.》

북남고위급군사회담개회를 위한 예비회담소식을 지켜보며 남조선 각계에서 울려나왔던 우려의 목소리이다.

결국 그 우려는 현실로 되어 예비회담은 중도에서 결렬되고 말았다.

책임은 상대방의 감정을 극도로 건드리는 무례하고 일방적인 주장만을 고집한 남측당국에 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이번 예비회담에서 남측은 《〈천안〉호폭침과 연평도포격도발에 대한 책임인정 조치와 추가도발방지확약, 비핵화

《본회담의 의제에 대한 남북사이의 립장차가 매우 컸다. 남측은 판사와 최수신분으로 회담하자고 하는데 과연 북측이 이를 받아들였는지.》

북남고위급군사회담개회를 위한 예비회담소식을 지켜보며 남조선 각계에서 울려나왔던 우려의 목소리이다.

결국 그 우려는 현실로 되어 예비회담은 중도에서 결렬되고 말았다.

책임은 상대방의 감정을 극도로 건드리는 무례하고 일방적인 주장만을 고집한 남측당국에 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이번 예비회담에서 남측은 《〈천안〉호폭침과 연평도포격도발에 대한 책임인정 조치와 추가도발방지확약, 비핵화

조전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이다. 그러나 일본이 과거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죄행과 그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말미암아 두 나라는 오늘날 비정상적인 관계에 있다.

새해에 들어와 일본당국자들은 조일현안문제해결과 관계개선을 위한 대화

조전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이다. 그러나 일본이 과거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죄행과 그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말미암아 두 나라는 오늘날 비정상적인 관계에 있다.

새해에 들어와 일본당국자들은 조일현안문제해결과 관계개선을 위한 대화

조전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이다. 그러나 일본이 과거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죄행과 그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말미암아 두 나라는 오늘날 비정상적인 관계에 있다.

새해에 들어와 일본당국자들은 조일현안문제해결과 관계개선을 위한 대화

조전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이다. 그러나 일본이 과거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죄행과 그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말미암아 두 나라는 오늘날 비정상적인 관계에 있다.

새해에 들어와 일본당국자들은 조일현안문제해결과 관계개선을 위한 대화

조전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이다. 그러나 일본이 과거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죄행과 그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말미암아 두 나라는 오늘날 비정상적인 관계에 있다.

새해에 들어와 일본당국자들은 조일현안문제해결과 관계개선을 위한 대화

조전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이다. 그러나 일본이 과거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죄행과 그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말미암아 두 나라는 오늘날 비정상적인 관계에 있다.

새해에 들어와 일본당국자들은 조일현안문제해결과 관계개선을 위한 대화

조전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이다. 그러나 일본이 과거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죄행과 그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말미암아 두 나라는 오늘날 비정상적인 관계에 있다.

새해에 들어와 일본당국자들은 조일현안문제해결과 관계개선을 위한 대화

조전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이다. 그러나 일본이 과거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죄행과 그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말미암아 두 나라는 오늘날 비정상적인 관계에 있다.

새해에 들어와 일본당국자들은 조일현안문제해결과 관계개선을 위한 대화

조전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이다. 그러나 일본이 과거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죄행과 그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말미암아 두 나라는 오늘날 비정상적인 관계에 있다.

새해에 들어와 일본당국자들은 조일현안문제해결과 관계개선을 위한 대화

조전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이다. 그러나 일본이 과거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죄행과 그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말미암아 두 나라는 오늘날 비정상적인 관계에 있다.

새해에 들어와 일본당국자들은 조일현안문제해결과 관계개선을 위한 대화

조전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이다. 그러나 일본이 과거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죄행과 그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말미암아 두 나라는 오늘날 비정상적인 관계에 있다.

새해에 들어와 일본당국자들은 조일현안문제해결과 관계개선을 위한 대화

조전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이다. 그러나 일본이 과거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죄행과 그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말미암아 두 나라는 오늘날 비정상적인 관계에 있다.

새해에 들어와 일본당국자들은 조일현안문제해결과 관계개선을 위한 대화

조전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이다. 그러나 일본이 과거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죄행과 그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말미암아 두 나라는 오늘날 비정상적인 관계에 있다.

새해에 들어와 일본당국자들은 조일현안문제해결과 관계개선을 위한 대화

조전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이다. 그러나 일본이 과거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죄행과 그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말미암아 두 나라는 오늘날 비정상적인 관계에 있다.

새해에 들어와 일본당국자들은 조일현안문제해결과 관계개선을 위한 대화

조전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이다. 그러나 일본이 과거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죄행과 그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말미암아 두 나라는 오늘날 비정상적인 관계에 있다.

새해에 들어와 일본당국자들은 조일현안문제해결과 관계개선을 위한 대화

조전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이다. 그러나 일본이 과거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죄행과 그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말미암아 두 나라는 오늘날 비정상적인 관계에 있다.

새해에 들어와 일본당국자들은 조일현안문제해결과 관계개선을 위한 대화



일본의 과거청산은 조일관계개선을 위한 정기모임

##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책동을 규탄

남조선의 범민련탄압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가 8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통일운동에 대한 당국의 탄압책동을 규탄하였다.

단체는 검찰이 이날부터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리규재, 사무처장 리경원, 선전위원장 최은아에 대한 조사를 벌

려놓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지금 국제적으로 조류독감의 급속한 확산에 인연 전례없는 사태로 축산업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날마다 세균이 불어나며 물가가 폭

등하여 국민들이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고있고 단테는 밝혔다. 그러나 당국이 이를 외면하고 동족대결에만 매달리며 북의 대화제를 뿌리치고 통일운동세력에 대한

폭압의 도수를 더욱 높이고 있다고 단테는 단죄하였다.

파쇼통치의 악랄한 수단인 《보안법》을 휘두르며 탄압에 광분하는 반통일, 전쟁대결세력은 민족의 존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단테는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약수생산기리

\*\*\*\*\*강서약수공장을 찾아서\*\*\*\*\*

예로부터 그 약효가 하도 좋아 세상에 널리 알려진 강서약수를 생산하는 공장이 최신시설비를 갖

춘 현대적인 공장으로 그 면모를 새롭게 일신하였다. 이 공장에서는 위생안전성이 담보되고 그 품

질이 세계적인증을 받은 강서약수가 폭포처럼 쏟아지고있다. 얼마전 우리는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크게 이바지하는 강서약수공장을 찾았다. 본사기자 박금일, 박원평

## 그 은정 노래하는 강서약수

산 좋고 물 맑은 공화국에는 인민들의 건강과 장수에 이바지하는 좋은 약수들이 많다. 그중에서도 강서약수는 그 약효가 특출한것으로 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이 약수가 발견되어 수백년 세월이 흐른 오늘 강서지구는 현대적인 시설들을 갖춘 강서약수공장이 세워져 질 좋은 약수가 팡팡 생산되고있다. 우리와 만난 공장의 립선화지배인은 멋들어지게 꾸려진 공장을 가리키며 자랑스럽게 말하였다.

《우리 공장은 인민을 위해 바쳐가시는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사랑속에 빛나고있습니다.》

해방전까지만 해도 강서약수가 샘솟는 이곳에는 허허벌판뿐이었다고 한다. 오랜 세월 이곳은 인민들의 고향으로 살찌는 착취자들의 유흥터로 되어왔다.

그러나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나라를 찾아주시신 때로부터 이곳의 풍경은 새롭게 변모되었다. 약수가 팔팔 솟아오르는 이곳

에 큰 규모의 강서약수공장이 일떠섰다.

여기에는 우리 인민의 건강증진을 언제나 첫자리에 놓으시는 절세위인들의 뜨거운 사랑이 깃들여있었다. 1947년 겨울 눈덮인 눈두렁길을 걸으시어 몸소 이곳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끝없이 샘솟는 약수를 맛보시고 약수가 참 좋다고 하시며 약수터를 잘 꾸러 인민들이 유명한 이 약수를 마시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약수가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널리 이바지하도록 여러차례 가르쳐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1970년대초에 또다시 이곳을 찾으시어 여기에 약수공장을 건설할때 대한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었다.

약수를 마시며 기뻐할 인민들의 모습을 눈앞에 그려보시며 약수의 려과, 탄산가스주입, 상표붙이기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강서약수》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신 위대한 그 사랑

에 떠받들려 강서약수공장이 일떠섰다.

어버이수령님의 이민위친의 숭고한 뜻을 그대로 이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공장종업원들은 세상에 자랑할만 한 강서약수를 더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 또다시 분발해나섰다.

정녕 절세위인들의 사랑속에 태어나 현대적인 약수생산기지로 빛을 뿌리는 강서약수공장은 단순한 약수생산기지가 아니다.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기울여오신 절세위인들의 사랑과 공화국의 인민보건의책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력사의 증견자이다.

바지하도록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인민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약수를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공장종업원들은 세상에 자랑할만 한 강서약수를 더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 또다시 분발해나섰다.

정녕 절세위인들의 사랑속에 태어나 현대적인 약수생산기지로 빛을 뿌리는 강서약수공장은 단순한 약수생산기지가 아니다.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기울여오신 절세위인들의 사랑과 공화국의 인민보건의책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력사의 증견자이다.



## CNC화된 흥겨운 일터

불수록 회한하다. 위생안전성이 철저히 보장된 CNC화된 호프식생선공정에서 질 좋은 병약수가 끊임없이 쏟아져나오고있다.

지난날의 손로동은 영영 자취를 감추었다. 모든것이 호프식이고 자동화되어있다. 자동병세척기와 병병검사기, 주입기, 온병기, 상표기를 차례로 통과하면서 약수가 가득 담긴 병들이 끊임없이 줄지어 흐른다. 그런가하면 컴퓨터 조종실에서는 약수용출구로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의 생산공정전반을 지휘한다.

유리병약수와 수지병약수로 이루어진 생산과정도 다 최신시설비들이다. 공장에서 로동은 그대로 노래로, 기쁨으로 되고있다.

이곳 강서약수공장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화되기 시작한것은 10년전부터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바지해는 강서약수공장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더욱



풍히 꾸릴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발은 자기 땅에 붙이고 눈을 세계를 보는 혁신적인 안목과 과학기술경쟁에서 남들을 앞도 할 민족적자존심을 안고 이약하게 달려붙어 마침내 오늘의 자랑찬 현실을 안아왔다.

공장에서는 생산설비를 최신식으로 개조한데 기초하여 강서약수의 품질을 한계단 끌어올려 이미 세계품질인증도 받았다. 위생안전성이 철저히 담보되고 생산원가가 낮고 약수의 품질이 좋기 다른 나라들에서 그 수요가 높다.

하지만 공장에서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립선화지배인은 말한다. 지금 이곳 강서약수공장에서 최첨단을 돌파할 높은 목표밑에 생산공정전반을 CNC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효능높은 강서약수가 폭포처럼 쏟아져나올 그날은 멀지 않았다.



## 보약중의보약

공장을 돌아보는 우리에게 팔팔 솟아나는 샘물처럼 시원시원한 성격 가진 립선화지배인이 강서약수의 효능에 대하여 설명해주었다.

《강서약수에는 칼슘이온, 나트륨이온, 마그네슘이온, 철이온, 규산이온, 염소이온, 류산이온, 수소탄산이온 등 각종 미량원소들이 많이 함유되어있어 사람들의 건강증진에 대단히 좋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강서약수는 위의 산도가 높고 낮은데 다 효과가 있을뿐 아니라 만성간염, 만성신우염, 빈혈, 피부병을 비롯한 여러가지 질병들에 효과가 좋아 사람들속에서 호평이 대단하다고 한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음원장에서 즐거운 기분으로 강서약수를 마시는 사람들을 만나보았다. 강서약수가 하도 좋아 자주 찾다보니 어느 사이에 단골손님이 되었다는 청산협동농장의 김선화농장원은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저는 오래동안 위병으로 고생해왔는데 강서약수를 정상적으로 마신 후부터 병이 저도

모르게 똑 멀어졌습니다. 이제는 강서약수를 하루도 마시지 않고는 못 견딜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다.

옆에서 강서약수 한고뿌를 시원히 들고난 중년의 한 남성이 자기도 한마디 하겠다며 볼썽 기어어들었다.

《나도 위궤양과 빈혈로 소화기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강서약수를 마신 다음부터는 식욕이 부쩍 당기고 온몸에 힘이 부쩍부쩍 솟아나 농장일을 매일 120%씩 넘쳐 하군 합니다.》

여러가지 병치로에 효과가 큰 강서약수가 이렇듯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게 된것은 인민을 위해 서서인 이 세상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의 결실이다.

약효가 큰 강서약수를 우리 인민들이 마음껏 마시게 하시려 여러차례나 공장을 찾으시어 약수생산에서 나서는 문제를 다 풀어주시고 오늘은 평양시내의 이르 곳마다에 강서약수매대를 차려놓고 봉사하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이다.

그 순간 우리 눈앞에는 거리를 누비며 달리는 《강서약수》라는 글자를 새긴 멧쟁이수송차들이며 시내의 곳곳마다에 있는 빨강과 파란 풍을 친 강서약수매대들이 정답게 안겨왔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렇듯 뜨거운 사랑이 있어 지난날에는 특권계층의 소유물만 되어오던 강서약수가 오늘은 평범한 우리 인민 누구나 마음껏 마시는 꿈같은 현실이 펼쳐질수 있었던것이다.

언제나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따사로운 사랑을 떠나 현대적인 강서약수공장이 세워진 곳마다 펼쳐진 약수매대풍경을 어찌 생 각이나 할수 있으랴.

이런 생각에 잠겨있는데 강서약수를 꾸준히 마셔온 덕에 아흔오개를 넘겨 산다는 한 로인이 허연 수염을 풀어넘기며 하는 말이 우리의 귀를 울려주었다.

《강서약수도 보약이지만 우리 장군님의 은덕이야말로 보약중의보약이지요.》

## 높은 애국적열의, 따뜻한 의리

공화국각지의 근로자들속에서 숭고한 정신세계와 높은 애국적열의를 안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에 성실한 노력과 깨끗한 공민적행동을 바쳐가는 아름다운 소행들이 계속 활짝 꽃피어나고있다.

얼마전 애국최종락피부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강성대국건설대전을 진두에서 지휘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를 더 잘 받들어나갈 일념으로 가슴불태우며 대건설전투장에서 위훈을 떨치고있는 건설자들에게 많은 지원물자를 넘겨주며 크게 고무해주었다.

어느 한 기관의 일군들인 정동광, 리세권은 종업원들과 함께 인포란광을 적극 도와주어 석탄생산에 이바지하고있다. 석탄란광에서 자체 부족으로 석탄생산에서 지장을 받고있다는것을 알게된 그들은 탄광일군들을 찾아가 《나라에서 전력생산문제

우리가 힘껏 탄광을 지원하겠으니 더 많은 석탄을 화력발전소에 보내달라.》고 요구하면서 수많은 자재와 설비, 생활필수품들을 보내주어 석탄생산을 늘이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평안북도 신의주기관차대기관조사 강승일은 사품치는 강물에 뛰어들어 사경에 처한 주민들을 구원하였다. 지난해 8월 암록강지구에 무더기비가 내리면서 산사태로 려차운행이 중단되어 기관차가 멎어있을 때 그는 강물에 뛰어들어 사품치는 물살과 떠내려오는 통나무들에 맞아 온몸이 찢기면서도 희생적으로 여러명의 주민들을 구원하였다.

숭고한 애국심을 지니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며 영예군인들을 친혈육의 정으로 돌보주는 미덕의 주인공들도 날로 늘어나고있다.

평안북도 정주시 서주동에 살고있는 최흥희로인은 10여년간 애국의 마음을 안고 80여정보의 산에 밤나무

림을 조성하였다. 정주시의 한 공장에서 일하다가 년로보장을 받은 그는 고향산천에 밤나무숲이 더욱 우거지게 하기 위해 이약하게 노력하여 지난해에만도 수확한 60의 밤을 시사회급양장에 보내주었다.

평안남도 성천군 백원공예전문협동농장 작업반장 리금옥은 지난 25년간 160여마리의 부림소를 길러 다룬 작업반은 물론 다른 농장들에도 보내주어 농업생산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25년전 비탈밭이 많은 농장에서 부림소들을 많이 길러 농업생산에 이바지하는것이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는 길이라는것을 자각한 그는 부림소를 자기가 맡아 기르리라 결심하고 온갖 정성을 기울여 소들을 길러 농업생산에 이바지하였다.

평안북도 운산군 삼산중학교 교원 리성실은 지난 17년간 학생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고 그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침으로써 학부형들과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고있다.

함경북도인민위원회 아래단위 일군인 김영수도 오래전부터 청진시 송평구역 수성동에서 살고있는 영예군인을 잘 돌봐주어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박금옥, 최명희, 권향숙, 박영희를 비롯한 평양역의 안내원들도 평양시 중구역 교구동에 살고있는 영예군인의 생활을 친혈육의 심정으로 돌봐주고있다.

이밖에도 평양대흥도피공장 로동자 김미화, 평안북도 함산군인민병원 의사 최금단, 강원도 원산시 해방2등에서 살고있는 리선옥, 평양청년력객리차승무대 승무화물원 안영민 등 많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사회와 집단을 위해 깨끗한 량심을 바치고 대고초들 돕는 건설장들을 힘있게 지원 하는 좋은 일들을 많이 찾아하고있다.

본사기자

머칠전 아침출근길에서였다. 장중하면서도 기백있는 노래가 지하철동차의 방송에서 울려나왔다.

... 우리는 자기를 믿듯 승리를 굳게 믿고 산다 고난의 천리를 가면 행복의 만리가 온다 ...

공훈국가합창단에서 형상한 노래 《승리의 길》이 울렸다.

승리! 방사포의 일제사격과 같이 씩씩하고 우렁차게 울리는 노래가 주렁주렁 울려오는 이 단어가 어쩐지 나의 뇌리를 쳤다. 돌이켜보면 우리 인민이 걸어온 길은 언제나 승리와 영광으로 가득찬 로정이었다. 백두대산에서 솟아져내리는 주체비발론, 주체비로목포, 끝끝없이 파도바다를 넘기며 대동강과수종합동장군과 철갑상어 육성거리는 흥정양어장 등 경이적인 사변들과 기념비적창조물들은 선군조국의 위대한 승리를 온 세상에 시유했다.

승리, 이는 그 어떤 우연이 가져다주는 행운이 아니다. 절세의 애국자

가였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새 세기에 들어선 오늘 우리 조국은 또 얼마나 거창한 사변들을 력사에 수놓았는가.

또한분의 천출위인을 높이 모신 민족적정기를 안고 10월의 경주광장에서 열병대오가 치른 만세의 환호에서 화답하여 온 나라가 격동속에 설레이던 지난해만 놓고

말할수록 멀어붙어있는데 비록 미국의 대응능력은 소진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과 미국의 《장기전》에서 최후승자는 북이 될것이며 미국은 패자로 될것이라 확실하다.》

그렇다. 지난해 말 군위사단의 용맹한 포병병들이 울린 열적의 포성은 최후승리의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의 분출이다. 최후에 웃는자가 진짜 승리자라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고

이런 생각을 더듬노라나 나의 눈앞에는 얼마전 남조선의 한 인터넷출판물에 실렸던 글이 떠올랐다.

《...236년의 미국력사에서 무려 3대에 걸친 미국대통령들이 어느 한 적국을 상대로 벌리는 《장기전》은 북과 미국의 대결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될것이다. ...북과 미국이 벌리는 《장기전》은 무승부로 끝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어 끝날것이다. 북이 지난 17년동안 계속된 《장기전》의 주도권을 계속 틀어쥐고있었고 지금도 가장 강력한 압박공세로 미국을 버

## 수필 승리의 노래를 들으며

보아도 강성대국의 대문을 팡팡 두드리는 기적같은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일어났다. 주체철생산체제의 확립, 대개도간식지의 완공, 대화학공업기지들에서 쏟아져내리는 주체비발론, 주체비로목포, 끝끝없이 파도바다를 넘기며 대동강과수종합동장군과 철갑상어 육성거리는 흥정양어장 등 경이적인 사변들과 기념비적창조물들은 선군조국의 위대한 승리를 온 세상에 시유했다.

승리, 이는 그 어떤 우연이 가져다주는 행운이 아니다. 절세의 애국자

이런 생각을 더듬노라나 나의 눈앞에는 얼마전 남조선의 한 인터넷출판물에 실렸던 글이 떠올랐다.

《...236년의 미국력사에서 무려 3대에 걸친 미국대통령들이 어느 한 적국을 상대로 벌리는 《장기전》은 북과 미국의 대결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될것이다. ...북과 미국이 벌리는 《장기전》은 무승부로 끝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어 끝날것이다. 북이 지난 17년동안 계속된 《장기전》의 주도권을 계속 틀어쥐고있었고 지금도 가장 강력한 압박공세로 미국을 버

전체 인민을 강성대국건설위업의 승리를 위한 최후돌격전으로 불러주시는 회세의 선군령장을 모시고 그들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천만군민이 있기에 승리는 확정적이다.

이러한 확신에 넘쳐있는 나 하나만이 아닌 나라수천만사람들의 가슴속에 승리의 노래가 더 높이 울려 퍼진다.

... 수령님 따라서 시작한 이 혁명 기어이 장군님 따라 승리 떨치리

본사기자 김철민



을 밀 대 의 설 경 을 화 폭 에 담 아 간 다 .

### 김일성방송대학 교무부에서 알립니다

김일성방송대학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특강을 다음과 같이 조직진행하려고 합니다.

강의제목: 1)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우리 인민의 세기적 숙망을 현실로 꽃피워주시는 인민의 위대한 아버지이다.

2)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온 겨레를 한품에 안아주시는 숭고한 민족애의 최고화신이다.

강의시간: 1) 1강의

2) 1강의

송출날자: 1) 주체 100(2011)년 2월 15일

2) 주체 100(2011)년 2월 15일

홈페이지주소: http://www.ournation-school.com

전자우편주소: E-mail:schoolmanager@silibank.com

청강생 여러분들이 주의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예로부터 전해진 우리 나라의 8경

### 애국대원 조국관심

조선8경은 예로부터 전해오는 우리 나라에서 으뜸가는 8개의 절경이다.

조선8경에는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 평양, 부전고원, 지리산, 해운대(부산), 불국사(경주) 등이 속한다.

관동8경은 관동지방에 있는 명승지들 가운데서 8개의 명승지에 대하여 부르던 말이다. 오늘날의 강원도, 경상북도의 북부지방에 해당하며 평동지방에 있다고 하여 평동8경이라고도 한다.

리조시기부터 동천의 총석정, 고성 삼일포, 간성의 청간정, 강릉의 경포대, 삼척의 죽서루, 양양의 락산사, 울진의 망양정, 평해의 월송정과 같은 자연경치와 고적이 있는 일대의 경치를 관동8경으로 꼽았다. 이 명승지들은 경치의 특색을 가지고 있으나 총체적으로 보면 호수경치, 바다가경치, 강변경치, 산경치 등이 두드러지면서도 이것들이 서로 결합되어 있다.

관서8경은 관서지방에 있는 명승지들 가운데서 8개의 절경에 대하여 부르던 말이다. 평양의 룡광정, 안주의 백상루, 강계의 인공루, 녕변의 약산동대, 성천의 강선루, 동림의 동림폭포, 의주의 동군정, 만포의 세검정의 자연경치를 관서8경으로 꼽았다.

관서8경의 명승지들은 서로 다른 경치의 특색을 가지고 있으나 주로 큰 강들이 굽이쳐흐르는 기슭의 벼랑, 산, 도시, 옛 건물 등이 잘 어울린 강변경치가 대표적이다. 특유우거진 산골짜기, 폭포의 경치도 특이하다.

본사기자

### 고사성구풀이

## 아리수에 귀를 씻다

...나라가 서서 백여년 지나자 전에 없던 희한한 일들이 세상을 놀래우기 시작했다.

벼슬망이 새그물처럼 나라를 덮었다. 백성—노예는 숨쉬기조차 가빠지고 그런가하면 벼슬을 한자리 얻으면 예주는 더 큰 노예주,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되었다.

벼슬이 사람들을 마귀가 들리게 했다. 관리신분이 아닌 막백성도 돈이 있거나 공을 세우면 벼슬을 딸수 있었으므로 강도고변이 꼬리를 물고... 공명, 출세바람이 세상을 미치게 했다.

이 세월의 벼슬은 수레 살인, 착취, 치부—그것이였다. 벼슬에 침을 뱉고 산속에 몸을 숨긴 《산림처사》들이 많이 나타난것이 이때 문이었다.

달문왕(고조선 6대임금)때였다. 아리산속에 아무개라는 처사가 있었다. 학식과 덕망, 나라일을 볼만 한 대경륜을 지닌 당세의 영걸이였으나 세상을 등지고 한생을 산속에서 살았다. 나무우뚝지에 등지처럼 집을 짓고 거기서 거처했으므로 이름조차 《등지아비》였다.

하루는 달문왕이 인제가 그리워 처사를 찾아왔다.

벼슬망이 새그물처럼 나라를 덮었다. 백성—노예는 숨쉬기조차 가빠지고 그런가하면 벼슬을 한자리 얻으면 예주는 더 큰 노예주,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되었다.

벼슬이 사람들을 마귀가 들리게 했다. 관리신분이 아닌 막백성도 돈이 있거나 공을 세우면 벼슬을 딸수 있었으므로 강도고변이 꼬리를 물고... 공명, 출세바람이 세상을 미치게 했다.

이 세월의 벼슬은 수레 살인, 착취, 치부—그것이였다. 벼슬에 침을 뱉고 산속에 몸을 숨긴 《산림처사》들이 많이 나타난것이 이때 문이었다.

달문왕(고조선 6대임금)때였다. 아리산속에 아무개라는 처사가 있었다. 학식과 덕망, 나라일을 볼만 한 대경륜을 지닌 당세의 영걸이였으나 세상을 등지고 한생을 산속에서 살았다. 나무우뚝지에 등지처럼 집을 짓고

## 우수한 민속 전통 - 바둑

우리 인민이 창조한 민속 전통 가운데는 지능놀이의 하나인 바둑도 있다.

바둑은 두사람이 마주앉아 검은돌과 흰돌을 번갈아 바둑판위에 놓아가면서 누가 더 많은 집을 차지하는가에 따라 승부를 가르는 실재지능체육종목이다.

바둑은 약 4천년의 역사를 가지고있다고 보고있다. 역사책인 《삼국사기》를 비롯한 여러 기록에 의하면 세나라 시기에 다른 무술놀이와 함께 바둑이 성행하였으며 이 시기에 벌써 바둑을 잘 두는 나라로 알려지고있었다고 한다.

몇사람이나 한두개 지역도 아니고 한 나라가 바둑을 잘 두는 나라로 알려졌다는것은 그만큼 두뇌가 발달되었다는 데도 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이 바둑을 즐겨왔으며 널리 하여왔다는것을 실증해준다.

바둑이란 말은 순수한 우리 말이며 여기에는 우리 나라 고대력사의 신비한 비밀도 어느정도 담겨져있다. 바둑판의 9개 화점에서 친원인 가운데점을 뺀 8개 화점의 안쪽칸수는 144칸인데 이것은 글자수가 144자로 씌어진 책 《신지비사》와 일치하고 화점 바깥쪽 180칸은 180자로 된 책 《개물고화경》의 글자수와 꼭 같다. 이 두 책은 모두 고조선과 고구려의 건국과 관련된 책들이다.

그뿐 아니라 옛날에는 바둑이 점치는 도구나 기상관측에 리용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우리 나라와 주변 나라에

방안출입과 리용에서도 아름다운 레철을 지켜왔다.

방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신발을 밖에 벗어놓고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며 밖으로 나갈 때에도 역시 레철있게 행동하였다.

이것은 생활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리며 방안의 정숙을 보장하는것을 비롯하여 생활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한 레철이었다.

또한 가정에서 방안의 아래목을 로인이나 옷사람들에게 권하고 젊은 이들은 옷목이나 옷방에 자리를 잡는것을 레철로 지켜왔다.

따뜻한 아래목에 늙은이들을 모신것은 웃어른들에 대한 존경의 표시인 동시에 그들에게 보다 좋은 생활조건을 마련해줄려는 우리 인민의 아름답고 고상한 마음씨를 그대로

리와 함께 방식을 권하고 손님이나 옷사람이 먼저 앉은 다음에 앉는것도 대대로 이어오는 우리 민족의 레의범절이었다.

방안에서 부모님이나 옷사람들이 마주앉아 일을 하하고있을 때 밖으로 나가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들의 등뒤로 돌아나가는것을 레철 바른 행동으로 여겼다.

본사기자 김영실

### 유모아 남편의 안해 두둔

딸이 아버지의 그릇에는 떡을 다섯개 놓아주고 자기 남편의 그릇에는 일곱개를 담아주었다.

남편: 《그 떡 참 먹음직스럽다. 내 떡이 많은지 아버지 떡이 많은지 한번 세어볼까? 이크, 아버지 떡은 다섯개이고 내 떡은 일곱개군.》

이렇게 되어 안해는 자기 아버지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였다.

그날밤이었다. 안해: 《제가 랑군님이 귀하여 떡을 더 놓아주었는데 어찌 그걸 밝혀 부모님앞에서 망신시킨단 말이예요?》

남편: 《임자 말이 정말 옳네. 내가 레일 입자를 위해 다시 말을 해주지.》

이튿날 아침 그는 잠을 깨기 바쁘게 장인의 방에 들어가 큰소리로 말하였다. 《어제 저녁 제가 먹은 떡은 분명 다섯개였습니다.》

### 건강상식 비지를 정상적으로 먹으면

다. 비지를 정상적으로 먹으면 매일 먹는 음식물속의 당분이나 비지에 많은 섬유소에 흡착되어 서서히 흡수되므로 피속의 포도당이 상대적으로 적어진다.

비지는 몸안의 《매》도 씻어준다. 몸안에서 생기는 독소를 내보내면서 《청소》를 하는것이 단식

로범이다. 그러나 실지 단식을 한다는것이 그리 쉽지 않다.

비지를 먹으면 단식을 하지 않고도 몸안의 《매》를 씻을수 있다. 비 《매》를 씻는 효과는 비지에 홍당무우를 섞어서 끓여먹을 때 더 잘 나타난다.

본사기자

## 단편소설 아버지의 약속 (5)

글 량 흥 일, 그림 허 은 혁

부두막앞에 무릎을 감싸고 오도카니 앉아있던 처녀가 고개를 힐끗 돌렸다. 전등빛에 처녀의 어글어글한 눈동자가 반짝 빛났다. 우는것이 아니라 무슨 명상에 잠겨있던 안색이었다.

《방으로 올라오십시오.》

《괜찮습니다.》

《부엌에서 밥을 썰수야 없질 않습니까?》

《일없습니다. 성자동무의 《환대》가 이제 다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외로 처녀는 수줍음이나 부끄러움은 조금도 없었다. 전쟁의 불길속을 헤쳐온 병사가 아닌가. 처녀는 병풍 일어나 가마를 들어내고 집게로 구멍탄을 갈아대며 상냥하게 말했다.

《동지, 쉬십시오. 제 걱정은 마시고.》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가 미담이들 사이에 두고 점점 허물없이 깊어졌다. 언제부터인지 주경필은 방안우묵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았었고 한순녀는 아래목에 앉전히 앉아 이야기를 하고있었다. 그 밤은 길었던지 짧았던지...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그리도 많이 했던지. 허허... 깔깔... 웃기도 했던 것 같다. 그 많은 이야기들중에서도 지금까지 머리에 박혀있는 대화는 이런 것이였다.

《동무나 나나 다같이 고향이 남쪽이요. 그러니 우리의 책임이 크오.》

《그래요. 나도 해연의 친엄마가 되어 행복하게 살

지와 딸이 상봉한다니 정말 기가 막힌 일이다.》

《에서 배길로는 한시간도 안걸릴 지척이건만... 해연이가 날 만나면 얼마나 원망하겠나. 알아보기나 하겠는 지...》

《피줄이야 어디 가겠소. 증대장은 형님이 올라올 때 나무에 새긴 조선지도를 꼭 가져오게 하라구 신신당부합니다.》

《그걸 여직 잊지 않고있던가?》

《있다니요. 우리가 자손들한테 전 밧이 거기에 깃들 어있습다.》

《그렇지!》

주경필과 김성각은 잊을수 없는 병사시절을 더듬고 있었다.

...김성각이 주경필을 알게 된것은 전쟁이 일어난 이듬해 가을이었다. 척 보는 순간에 벌써 힘풀이나 패 쓸것 같아보이는 커다란 키폴과 붉고 굵은 힘살들이 불끈거리는 팔뚝, 과묵하면서도 대하기가 편 어려워보이게 하

해 떡 걸어보이는 그의 마음은 달아오른 댕갓기처럼 훈훈하였고 속은 들여다볼수록 깊이를 알수가 없었다. 해방후부터 입대전까지 인천알바다에서 25마력짜리 기관을 놓은 배를 타고 살아가는 그로서 그런지 기계물계에서는 제 손금처럼 뒤흔었다.

그들사이의 우의는 삶과 죽음의 결정장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을 방불케 하였다.

주경필은 성각에게 차기 판에 대해서 까근한 정을 쏟으며 배워주었다. 김성각은 해방전이나 해방후나 가난의 족발을 차고 파도우에 운명을 맡기며 살아오느라 우리 글도 모르고 자라온 주경필에게 우리 글을 배워주었다. 정말이지 그들은 다정한 《친형제》를 방불케 하였다. 주경필은 우리 글을 천천히 받아물었고 김성각은 자동차기계를 흠뻑기처럼 빨아들이었다. ...

밤! 검은 하늘에는 떼구 떼구 산봉우리에 걸터앉을 듯 배회하고 사위를 에워싸며 초롱같은 어둠이 음침하게 흐르고있었다. 뽕! 조영탄의 눈부신 백광속에 순식간에 통채로 드러났다 사란지는 산골짜기, 그 서늘에 순간적으로 드러나는 위장망을 쓴 포탄수송대의 종대, 새벽에 전선으로 포탄을 운반할 임무를 받은 증대군인들은 모두 운전실에서 쪽잠에 들어있었다.

옆집에서 깨어난 김성각은 옆자리에 보이질 않는 주경필을 찾았다. (어데 갔을가?)

눈을 비비며 다시 주위를 둘러보던 그는 은메추안에서 죽직하면서 큰 허우대를 구부리고 무엇인가를 들여다보는 주경필을 발견했다.

무릎위에 놓인 펼친 학습장크기의 판자, 락식천만한 기색으로 그것을 들여다보는 주경필의 주름진 얼굴, 이것은 김성각의 마음에 의문의 파도를 몰아왔다.

